

# “일승묘법 활짝 피도록”

## 삼광사 신임 주지 화산 스님 취임

35만 불자의 부산 대표 천태종 사찰 삼광사가 제10대 주지로 화산 스님을 맞았다.

삼광사는 2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제10대 주지 스님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육법공양, 법어봉독, 직인전달, 취임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새 주지 화산 스님의 취임을



부산 삼광사 제10대 주지로 취임한 화산 스님.

축하하기 위해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동식 KBS부산총국장 등 정관계인사 및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참석해 3층 규모의 지관전을 가득 메웠다.

정여 스님은 “삼광사는 신도 수만 35만 명이 넘는 부산 불교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새 주지로 오신 화산 스님의 어깨가 무겁다”며 “모든 종단이 한마음으로 2009년을 부산불교 중흥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축하했다.

이어 화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이 우리 중생들에게 큰 의지처가 된 것처럼,

신명을 다해 길을 걸어 35만 삼광사 불자들의 마음에 새겨두고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중창이념을 받들어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힘써 부산에 일승묘법이 활짝 꽃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한 제10대 주지 화산 스님은 1996년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감사와 2001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청주 명장사, 서울 명락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천태종 총무원 책임노전과 14대 종의회 법제분과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1월 3일 삼광사 주지 임기를 마친 전 주지 영제 스님은 서울 관문사 주지로 취임했다. 이날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전 주지 영제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삼광사 불자들을 만난 것은 참으로 큰 복이기에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가슴에 새겨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언제나 삼광사 불자다운 뜨거운 불심으로 천태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원 기자

# “학사관리 등 중무지침 준수하지 않았다”

## 조계종, 부산불교교육대학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 취소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 이하 포교원)이 포교사고시 전국 최대 합격자를 배출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취소했다.

포교원은 1월 16일 기존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취소하고, 1월 24일 교계신문을 통해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공고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진구 부전동에 위치, 2002년 4월 23일 조계종으로부터 신도전문교육기관 최고 등급인 ‘갑종 제 2002-7호’ 인가를 받았다.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으면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부산불교교육대학 또한 2008학년도까지 우수한 포교사를 배출해 부산경남지역 명문학교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1월 16일 포교원은 공고문을 통해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대학 운영 및 학사관리 등에 중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본종 종법령에 의거 2009년 1월 16일자로 기존 신도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조계종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불교대학이라는 명분 등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신입생을 받은 경우에는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교육생으로 인정되지 않고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7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교사양성

교육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가 취소를 당하게 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포교원 쪽에서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자비이고 또 부처님 법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강선태 학장은 2월 2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현모 총동문회장은 “어떻게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 문제를 방치했는지 의아하고, 한때 최고였던 우리 대학의 명성에 오점이 돼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 측에서 반성하고 자성해 다시 인가를 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2008학년도 재학생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제18기 재학생 김모씨는 “함께 공부한 대부분의 학우들은 포교사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명문 불교대학이다. 사진은 부산불교교육대학 수업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했는데 더 이상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면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며 “입학 당시 200여 명이던 학생들이 백중기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20여 명이 졸업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즈음 약속했던 강사진의 70% 이상이 교체되고, 여태정사라는 학내 사찰이 들어서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심해, 학교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다시 한번 취득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명문 불교대학이란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염불공양 원력담긴 장학금 전달

## 부산 염불공양회 창립 15주년 총회

부산 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 법명 성심행)는 2월 2일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가정 학생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이번 정기총회는 염불공양회 봉사자 및 후원회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09년 정기총회, 장학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생 10명에 각 30만원, 대학생 4명에 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이 전달됐

다. 하정선 회장은 “소정의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염불공양을 하는 엄마들이 주는 장학금인 만큼 원력이 담겨있어 타 장학금에 비해 남다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불자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 염불공양회는 1995년 염불을 통한 봉사를 목적으로 발족, 400여 명의 회원 모두 여성 불자로 구성돼 현재 무료장례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 통도사서 선보인 야콘환·즙 ‘인기’

## 영농조합법인 영축총림에서 작년부터 야콘 재배

양산 통도사의 영농조합법인 영축총림(대표이사 정우이)이 처음 출시한 ‘야콘환, 야콘즙’에 대한 불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통도사는 2008년 봄부터 영축산 자락인 통도사 경지 내 반야암 일대에서 야콘 재배를 처음 시작해, 10월 초 ‘야콘환’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야콘즙’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특히 ‘야콘환’은 야콘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하고, 잎과 뿌리의 유효성분을 적절히 배합하기 위해 잎 40%, 뿌리 40%, 다시마 10%, 검은콩 10%를 배합해 환으로 개발했다. 야콘은 고무마처럼 단맛이 나고 매처럼



통도사 영농조합이 첫 출시한 야콘환과 야콘즙의 원료인 야콘을 수확하는 농부 정우이 씨.

시원하고 수분이 많다. 주요 성분은 프락토올리고당, 인슐린, 폴리페놀 등이며 알칼리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어린잎은 샐러드용으로 이

용하고, 수확기의 잎은 차로 이용하며 대표적인 요리로는 야콘냉면, 야콘국수, 야콘호떡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런 야콘은 영농조합법인 영축총림이 첫 번째 상품화한 작물로 재배는 비교적 쉽지만, 씨를 튀우고 수확 후 겨울철 보관하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까다로운 작물이기도 하다.

영축조합법인 영축총림의 ‘야콘환’ ‘야콘즙’은 통도사 만세루와 육각정, 서울 조계사, 표충사 등에서 판매중이며 향후 판로를 늘려갈 계획이다. (055) 384-9458 박지원 기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할 터”

## ‘거창군 삶의 쉼터’ 2대 관장 선용 스님



경상남도 거창지역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시설 ‘거창군 삶의 쉼터’는 1월 20일 초대관장 심우 스님과 제2대 관장 선용 스님(아림사 주지·사진)의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우 스님, 양동인 거창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용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재가복지사업에 중점을 뒀 ‘찾아가는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분을 진부보 형제처럼 받들며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20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거창군 삶의 쉼터’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며 지금까지 애써준 초대 관장에게 감사드린다”며 “2대 관장으로 취임하신 선용 스님이 본 관이 명실공히 거창지역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거창군 삶의 쉼터’는 현재 노인 1300여 명, 장애인 300여 명의 회원이 이용중이다. 올해를 성장 기점으로 ‘거창군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돋움에 준비하고 있어, 새로 취임한 관장 선용 스님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지원 기자

## 대한불교 무량종

# 승려(사미.사미니) 법사 득도희망자 모집공고

미타종지 근본 도량 대한불교 무량종 지리산 총본산 금강계단에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승가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하고자 승려(사미, 사미니)법사.득도 희망자 방부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하오니 뜻있는 분은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1. 불심이 견고하며 민형사상 결격 사유가 없고 득도 자격을 가진자로서 승려나 법사 과정을 희망하고 정상적인 승적을 갖고져 하시는분. 2. 사설 사암(寺庵)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단등록을 못하였거나 출가 수계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승려, 포교법사 자격을 얻어 출가하고자 하시는분.
- 모집인원 : 00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턴 2009년 3월 10일까지
- 면    점 : 2009년 3월 18일 오전 11시
- 면접장소 : 무량종 총본산 중무소(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 교육기간 : 1차 - 2009년 3월 18일(수) 부터 ~ 3월 24일(화) (7일간)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주민등본 1통, 여권사진 3장,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준    비    물 : 법복, 장삼, 목탁, 요령, 필기도구, 세면도구      ■ 교    육    비 : 300,000원
- 접수문의 : 055)882-1599 (총무원) / 055)883-7771, 7790 (총본산)

불기 2553(2009)년 2월 1일

##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보경